질곡의 현대사 감싸안은 우리시대 큰 어른

■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신앙

1969년 세계 최연소 추기경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

김수환 추기경은 1922년 5월8일(음력) 대구 남산동 225-1번지에서 부친 김영석(요셉)과 모친 서중화(마르티나)의 5남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조부 김보현(요한) 때부터 천주교 신앙을 이어온 집안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신앙이 돈독한 소년으로 성장했다.

초등학교 과정인 군위공립보통학교 1학년 때 부친을 여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친의 권유에 따라 세 살 많은 형 동환과 함께 성직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보통학교 5년 과정을 마친 김수환은 1933년 대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 예비과에 진학해 성직자로 나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의 소신학교인 동성상업학교에 들어갔다. 김 추기경은 이 학교에서 지학순(1921~1993) 주교, 김재덕(1920~1988) 주교 등과 함께 수학했다.

이후 일본 도쿄의 상지대학으로 유학해 철학을 전공했으며 1947년 초 서울 성신대학(가톨릭대 신학부)으로 편입했다. 그는 스물아홉살인 1951년 9월 대구 계산동 주교좌 성당에서 사제로 서품됐고 경북 안동본당(지금의 목성동 주교좌 본당) 주임 신부로 사목의 첫발을 내디뎠다.

1956년 독일 유학길에 오른 김 추기경은 뮌스터대학에 적을 두고 7년간 그곳에 체류했다. 그 때 만난 요셉 회프너 교수에게 배운 '그리스도 사회학'은 김 추기경이 그리스도 사상에 기초한 인간관과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귀국 후 가톨릭시보사(현 가톨릭신문사) 사장을 지내며 교회 언론의 초석을 다졌는가 하면, 1966년에는 신설된 마산교구의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주교품을 받았고 그로부터 2년 뒤 서울대교구장에 올랐다.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된 것은 그로서도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당시 주한 교황대사 히폴리토 로톨리 대주교로부터 급히 상경하라는 전갈을 받고 대사관에 들어선 김 추기경은 "대주교로 승품되어 서울대교구장직을 맡게 됐다"는 놀라운 말을 들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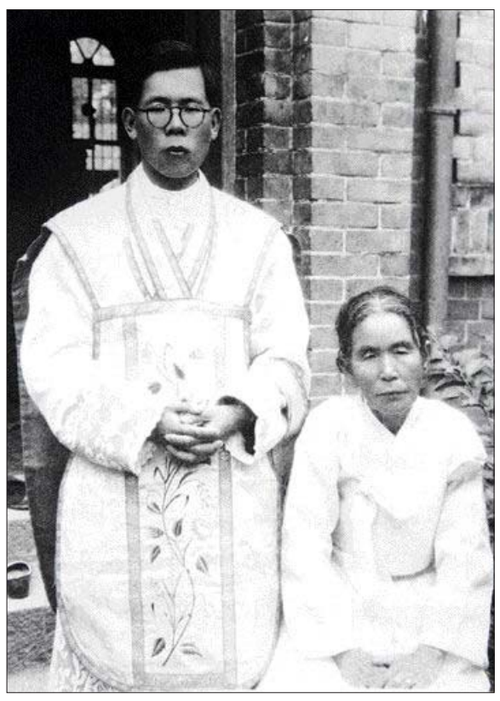
'시골뜨기 주교'에서 일약 한국 천주교의 중심인물이 된 김 추기경은 이후 30년 동안 서울대교구장으로 재임하면서 현대사의 한복판이 됐던 명동성당과 함께 한국사회의 영욕을 몸소 겪어야 했다. 그는 이듬해인 1969년 우리나라 최초로 추기경에 임명된다. 당시 그의 나이 47세로 전세계 추기경 136명 가운데 최연소자였다.

그러나 추기경이 되었다는 영광은 잠시였다. 1970~80년대 격동의 시대 속에서 세상과 교회를 모두 돌보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 특히 1970년대 가톨릭교회와 명동성당은 박정희 유신정권에 맞서 싸우는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 됐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출범하면서 교회의 현실참여문제로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1974년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지학순 주교를 비롯한 여러 사제들이 옥살이를 하는 등 교회와 정부의 골도 깊어져만 갔다.

1980년대 명동성당은 민주화 운동의 해방구였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때 명동성당은 권력에 맞서 싸우는 마지막 보루였다. 김 추기경은 당시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연행하려던 경찰 병력의 투입을 끝까지 막아냈다.

종교인이자 사회지도자로서 시대의 한복판에 섰던 김 추기경은 교황청에 사임 의사를 밝힌 지 6년 만인 1998년 서울대교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은퇴 이후 2002년 북방 선교에 투신할 사제를 양성하기 위한 옹기장학회를 공동 설립하는 등 북한 선교를 위해 노력했고,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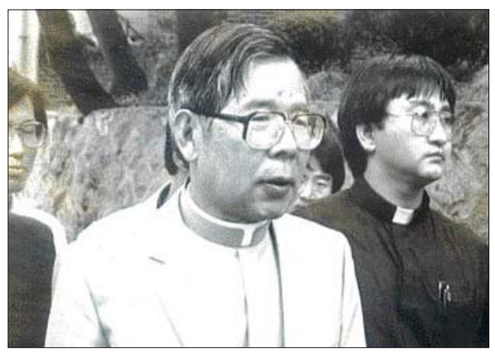
'너와 너희 모두를 위하여'라는 자신의 사목 표어처럼 '세상 속의 교회'를 지향하면서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종교인의 양심으로 바른길을 제시해온 김 추기경은 시대의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뒷사람들에게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연합뉴스



1951년 사제 서품을 받고 난 후 김수환 추기경이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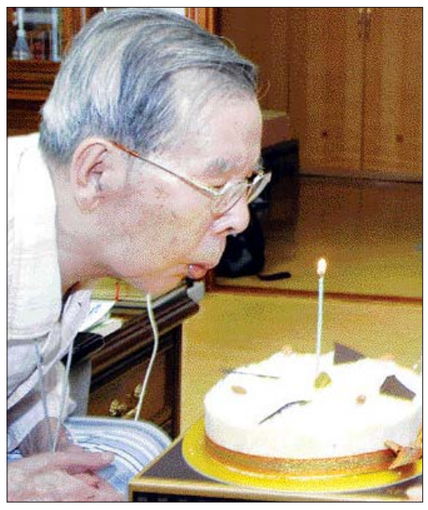
추기경 서임 1969년 5월20일 서울 혜화동 소신학교(사제를 양성하는 대신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학교)에서 추기경 서임 행사를 갖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987년 6월1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학생들과 면담을 마친 뒤 걸어나오고 있다.

광주 미사 김수환<오른쪽서 세번째> 추기경이 1984년 5월 4일 광주시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단상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미사집전을 보좌하고 있다.



지난해 6월18일 86번째 생일 축하 파티에서 케이크의 불을 끄고 있다.

전남대 강연 1998년 6월16일 전남대학교 초청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故 김수환 추기경 약력

- ▲**1922년 5월8일**(음력) = 대구 출생
- ▲**1947~1951년** = 서울 가톨릭대 신학부 신학전공
- ▲**1951년** = 사제 서품 및 대구 대교구 안동천주교회 주임신부
- ▲**1956~1963년** = 독일 뮌스터대 대학원 사회학전공
- ▲**1964년** = 주간 가톨릭 시보(현 가톨릭신문) 사장
- ▲**1966년** = 마산교구 주교 서품 및 마산 교구장 착좌
- ▲**1968년** = 서울 대주교 승품 및 서울 대교구장 착좌
- ▲**1969년** =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추기경 서임
- ▲**1970~1975년**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1차 역임)
- ▲**1975~1998년** = 평양교구장 서리
- ▲**1981-1987년**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2차 역임)
- ▲**1998년** = 서울대교구장 은퇴, 아시아 주교회의 공동의장
- ▲**2001년** = 사이언스 북 스타트운동 상임대표
- ▲**2003년** = 생명21운동 홍보대사
- ▲**2009년 2월16일** = 선종